

## ■ 6월 오얀타 우말라의 집권과 남미의 지정학적 변동

김 은 중

페루 대선 결선투표에서 오얀타 우말라가 3퍼센트의 근소한 차이로 게이코 후지모리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얀타 우말라의 우세는 출구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지만 그 차이가 오차범위로 크지 않아서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개표가 75퍼센트 정도 진행되던 시점에서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은 오얀타 우말라의 승리를 축하한다고 전했다. 아르헨티나 언론사 ‘파히나/도세’ (Página/12)는 피네라 대통령의 때 이른 축하 메시지가 “무모한 행동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과시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꼬았다. 개표가 75퍼센트 진행되던 시점에서 오얀타 우말라는 겨우 20,672표 앞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얀타 우말라의 승리를 때 이르게 선언한 것은 피네라 대통령만이 아니었다. 페루의 우파 지식인이자 2010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는 “페루가 독재로부터 벗어났다”고 서둘러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전직 대통령 알레한드로 톨레도 역시 개표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오얀타 우말라의 승리를 선언했다. 톨레도는 오얀타 우말라의 승리의 요인을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발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얀타 우말라가 국민적 통합을 지향하는 정책을 펼 것이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도 오얀타 우말라의 당선을 염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선거에서 알랑 가르시아에게 패배한 후 절치부심 끝에 집권에 성공한 오얀타 우말라도 자신의 쿠데타 전력이 보여 주는 강성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온건한 이미지를 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선거 다음 날 페루 증시는 12퍼센트 폭락했다. 월요일 개장하자마자 증시는 8.7퍼센트 폭락했고 거래가 일시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폭



를라와 만난 오얀타 우말라는 “정부마다 가야할 길이 있다. 다른 정부의 길을 배울 수는 있지만 그대로 따라 가서는 안 된다” 는 의견을 피력했다.

락을 주도한 것은 광산업종이었다. 미국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와 피치는 투자를 축소할 만큼 페루 정국이 불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오얀타 우말라 당선자의 경제팀에서는 페루 거시경제의 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요동치는 주식 시장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쳤던 페드로 파블로 쿠진스키(PPK로 더 잘 알려져 있다)는 선거운동 기간에 “우말라의 위험성”을 주장하면서 오얀타 우말라가 승리하면 페루 증시는 폭락하고 슈퍼마켓에서 분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페루의 과두기득권 세력과 초국적 자본, 그리고 이를 뒤에서 지원하는 미국의 협공에도 불구하고 오얀타 우말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페루 민중이 소위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s)를 전혀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마도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오얀타 우말라의 승리를 예견할 수 있었던 이유였을 것이다. 페루는 지난 8년 동안 ‘중국 성장률’이라고 불리는 연평균 8퍼센트의 경제성장을 기록했지만 민중의 삶의 질은 거의 향상되지 않았다. 페루의 국민총생산(PIB)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participación salarial)은 22퍼센트로 칠레(45퍼센트)나 브라질(40퍼센트)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상태다. 임금점유율 면에서 페루만큼 낮은 나라는 멕시코인데 멕시코는 1980년대 40퍼센트였던 임금점유율이 최근에는 29퍼센트로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금융과 광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우파 기득권층은 오얀타 우말라가 집권하면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얀타 우말라 정권은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안고 있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페루 증시 폭락이라는 협박성 메시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과두기득권 세력과 초국적 자본의 저항과 압박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우말라는 시장경제를 존중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동시에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경제정책에 대한 급격한 변화 대신에 사회정책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희망을 피력

한 바 있다. 대표적인 공약으로 ‘쿠나 마스’ (Cuna Más, 3세 이하의 유아를 돌보는 무상 보육정책)와 ‘펜시온 65’ (Pensión 65, 연금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달 약 90달러 정도를 지급하는 정책)를 들 수 있다. 또한 민관 협동 조직을 통해 각 주마다 병원을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광산업종의 초과 이윤에 대한 과세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우말라 정권이 연립정권을 통해 이러한 사회정책들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오얀타 우말라의 집권은 국내정치에서보다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페루는 몇 가지 점에서 미국이 안데스 지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 국가이기 때문이다. 첫째, 페루는 아마존 밀림 지역에서 브라질과 광대한 국경을 접하고 있다. 둘째,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교역을 위한 가장 근거리의 항구를 확보하고 있다. 이곳을 통해 브라질과 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중요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페루는 3대 사업(수송, 에너지, 통신) 10개 개발축으로 이루어진 남미 대륙 인프라 구축사업인 “남미 인프라 통합 이니셔티브” (La Iniciativa para la Integración de la Infraestructura Regional Suramericana) 중에서 ‘대양 간 중심축’ (Eje Interoceánico Central)을 형성하고 있다. 셋째, 페루에는 북쪽(파나마와 콜롬비아)에서부터 남쪽(파라과이)까지 브라질을 감싸는 미국의 ‘남부 사령부’ (Comando Sur)의 중요 군사기지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이 페루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게 되면 펜타곤의 군사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하며 전적으로 콜롬비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알랑 가르시아 대통령은 남미 지역통합을 위한 시도들—남미국가연합 (UNASUR), 남미은행(Banco del Sur), 남미방위협의회(Consejo de Defensa Suramericano) 등—을 회피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는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로 이루어진 ‘태평양 동맹’ (Alianza del Pacífico)을 결성했다. 이는 남미 중도좌파 성향 국가들의 저항으로 좌초한 미주자유무역지역을 회복하려는 미국의 의도로 볼 수 있다. 또한 5월 30일에는 페루, 콜롬비아, 칠레 세 나라의 주식시장을 통합한 ‘남미통합시장’ (MILA, Mercado Integrado Latinoamericano)이 출범했다. MILA는 시가총액 6,430억 달러로 브라질(시가총액 1조 6,000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주식시장이다. 여기에 ‘태평양 동맹’에 합의한 멕시코(시가총액

4,730억 달러)가 가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오얀타 우말라는 페루가 브라질의 ‘전략적 동지’가 되기를 희망하며 메르코수르 가입 의사를 피력했다. 페루에 대한 브라질의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고 현재도 페루 남부 이남바리(Inambari) 강에 160억 달러 상당의 수력발전댐 5개를 건설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얀타 우말라의 이러한 계획은 페루와 미국 간, 페루와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발목이 잡혀 있다.

대부분의 외신은 결선투표가 벌어진 날 페루는 보수와 진보 두 진영으로 갈라졌다고 보도했다. 21세기에 들어와 남미 대륙의 정치지형의 변화 과정에서 목격했듯이 오얀타 우말라 정권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기득권층의 저항과 이에 반대하는 민중의 저항에 동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말라를 지지해 준 민중을 위한 정책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포퓰리스트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다. 당선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당신의 정부는 정부는 좌파입니까?” 하고 묻는 기자에게 오얀타 우말라는 “나의 정부는 민중을 위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우회적인 답변을 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국내 문제는 국제적인 차원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직면한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얀타 우말라 정권이 해야 할 일은 남미 대륙을 지배하는 힘의 역학 관계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일이 될 것이다.